

ACRL 프레임워크 기반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 대상 모듈형 정보 리터러시 교육 모형 연구

- 고전 텍스트 활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odular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Model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Graduate Students Based on ACRL Framework: Focusing on the Use of Classical Texts

정 성 희 (Seong-hee Jeong)*

장 우 권 (Woo-kwon Chang)**

목 차

- | | |
|-----------------|---------------------|
| 1. 서 론 | 4. 운영 시나리오 및 적용 가능성 |
| 2. 이론적 배경 | 5. 결 론 |
| 3. 모듈형 교육 모형 설계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의 심화된 정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ACRL의 '고등교육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formation Literacy for Higher Education)'를 기반으로 고전 텍스트를 활용한 모듈형 교육 모형을 제안하는 데 있다. 기존의 기능 중심 교육이 대학원생의 연구 맥락과 괴리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연구는 수업 과정에 정보 탐색과 해석 과정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ACRL의 6개 프레임워크를 이론적 토대로 삼고, 각 프레임의 임계 개념(Threshold Concepts)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고전 텍스트를 매칭하여 총 6개의 모듈을 설계하였다. 또한, 탐구 공동체(CoI) 모델을 토대로 읽기, 대화, 쓰기의 순환적 교수-학습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하는 모듈형 모형은 정규 교과목뿐만 아니라 방학 집중 과정, 도서관 비교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운영 형태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며,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들이 비판적 정보 이용자이자 지식 생산자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modular education model using classical texts based on the ACRL 'Framework for Information Literacy for Higher Education' to cultivate advanced information literacy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graduate studen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kill-centered education, which is often disconnected from the research context of graduate students, this study incorporates the processes of information seeking and interpretation into the curriculum. Based on the six frames of the ACRL Framework, six modules were designed by matching classical texts that allow effective learning of the threshold concepts of each frame. In addition, grounded in the Community of Inquiry (CoI) model, this study designed an iterative instructional strategy that integrates reading, discussion, and writing. The modular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is flexibly applicable to various operational forms, such as regular courses, intensive vacation courses, and library extracurricular program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graduate students as critical information users and knowledge producers.

키워드: 정보 리터러시, ACRL 프레임워크,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 고전 텍스트, 모듈형 교육
Information Literacy, ACRL Framework,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Graduate Students, Classical Texts, Modular Education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박사통합과정수료(hee0310@jnu.ac.kr / ISNI 0000 0005 2972 6785)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k1961@jnu.ac.kr / ISNI 0000 0004 6437 5303)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6년 1월 20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2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2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1): 251-272,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1.251>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디지털 정보 생태계의 확장은 연구자의 학술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증가는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으나, 동시에 맥락이 거세된 정보의 과잉 현상을 초래하였다(정재리 외, 2022; 정영미 외, 2025). 이에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정보 기술은 인간의 보다 고도화된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이운지 외, 2019). 이러한 환경에서 연구자로서 첫발을 내디딘 대학원생들에게 요구되는 정보 리터러시는 단순한 검색 기술이나 자원 접근 능력을 넘어선다(장덕현, 최고은, 2008; 유사라, 2018). Badke(2021)는 현대의 연구자에게는 '정보의 안개(Information Fog)' 속에서 유의미한 지식을 식별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전략적 탐구 역량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텍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석을 중시하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들에게 정보는 단순한 사실의 집합이 아닌 역사적이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고 해석되어야 할 대상이다(윤정옥, 2009; 김양선, 2018).

그러나 기존의 정보 리터러시 연구와 교육 현장은 이러한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선행 연구가 학부생 대상의 범용적 모델에 치중되어 있어, 연구자로서의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을 겪는 대학원생의 고유한 정체성 형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Gardner, 2008). 교육 내용이 여전히 데이터베이스 이용법이나 서지 관리 도구 사용법 등 기능적 기술(Functional Skills)의 숙달에 머물러 있어(유사라, 2018), 무엇보다 학문 분야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표준화된 실

험 매뉴얼이 존재하는 자연과학과 달리, 텍스트의 해석과 비판적 논쟁이 연구의 본질인 인문사회계열(Becher & Trowler, 2001)에서 이러한 도구 중심의 접근은 성찰적이고 메타적인 정보 문해력을 함양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정보 리터러시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식론적 토대' 구축의 과정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이 연구는 2016년 미국대학연구도서관협회(ACRL)가 공식 채택한 '고등교육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formation Literacy for Higher Education)'를 이론적 기반으로(ACRL, 2016),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화된 교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ACRL 프레임워크는 정보 리터러시를 단순한 기술 목록이 아닌 학습자가 넘어야 할 '임계 개념(Threshold Concepts)'으로 재정의하였다(ACRL, 2016; 최재황, 2016a; 2016b).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틀에 인문학적 사유의 원천인 '고전 텍스트(Classical Texts)'를 교육 도구로 접목함으로써, 학습자가 정보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비판적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모듈형 교육 모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문헌 연구와 모형 설계의 방법론을 따라 수행되었다.

첫째, ACRL 프레임워크의 6개 핵심 개념과 임계 개념 이론을 분석하고(ACRL, 2016; 최재황, 2016b), 이것이 인문사회계열 연구자의 정보 행동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고찰하였다.

둘째, 교육학적 관점에서 모듈형 교육과정 설계 원리와 Garrison et al.(2000)의 탐구 공동

체(CoI) 모델을 검토하여 교수-학습 전략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된 정보 리터러시 교육 모형을 설계하고, 각 모듈의 목표에 부합하는 고전 텍스트 선정 및 학습 활동을 구체화하였다. 고전 텍스트는 ACRL 프레임워크의 각 핵심 개념을 은유적·철학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에게 친숙한 학문적 전통 내에 위치한 저작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개발된 모형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을 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교육 콘텐츠는 정보 리터러시의 핵심 개념을 철학적 사유와 연계할 수 있는 고전 텍스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2. 이론적 배경

2.1 ACRL 프레임워크

미국대학연구도서관협회(ACRL)가 2000년 발표한 ‘고등교육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 능력 기준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은 정보 활용 능력을 일련의 기술적 지표로 규정하며, 도구적 기능 습득과 선형적 검색 절차를 강조하였다(ACRL & ALA, 2000). 그러나 이러한 정보 활용 능력만으로는 복잡한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 그 맥락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ACRL은 2016년 기존의 ‘기준(Standards)’

을 폐기하고 ‘고등교육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formation Literacy for Higher Education)’를 공식 채택하였다. 이는 행동주의적 스킬 중심 교육에서 구성주의적 개념 중심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ACRL, 2016). 프레임워크는 정보 리터러시를 “정보의 생산과 가치 평가, 정보 이용에 대한 연구, 지식 창출과 참여에 있어 반성적 발견을 위한 통합된 능력들의 집합”으로 새롭게 정의하며, 정보 생태계에 대한 메타인지적 이해를 강조한다.

ACRL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학의 ‘임계 개념(Threshold Concepts)’ 이론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임계 개념이란 학습자가 특정 학문 분야의 사고방식을 체화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과 같은 개념으로, 한 번 이해하고 나면 이전의 인식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이고 변형적인 특성을 갖는다(Meyer & Land, 2003; 최재황, 2016b). 즉, 정보 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학습자의 관점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임계 개념을 기반으로 상호 연결된 6개의 핵심 프레임(Frames)을 제시한다.

1) 권위는 구성되고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Authority Is Constructed and Contextual): 권위 있는 정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학문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구성됨을 이해한다.

2) 정보 생성은 하나의 과정이다(Information Creation as a Process): 정보가 생성되고 유통되는 과정 자체가 그 정보의 품질과 가치

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한다.

3) 정보는 가치를 지닌다(Information Has Value): 정보가 법적,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이자 지적 자산임을 이해한다.

4) 연구는 탐구의 과정이다(Research as Inquiry): 연구를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던지고 해결해가는 순환적 탐구로 정의한다.

5) 학문은 대화다(Scholarship as Conversation): 학술 활동을 고립된 작업이 아니라, 선행 연구자 및 동료들과의 지속적인 담론 교환 과정으로 파악한다.

6) 검색은 전략적 탐색이다(Searching as Strategic Exploration): 정보 탐색을 단순한 기술적 행위가 아닌, 유연한 사고와 전략이 필요한 지적 탐험으로 접근한다.

이 연구는 이 6가지 프레임이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이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인식론적 토대가 된다고 보아 이를 교육 모형의 핵심 설계 원리로 삼았다.

2.2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의 정보 행동 특성

인문사회계열 연구자의 정보 탐색 행태는 명확한 가설 검증을 위해 최신 데이터를 선형적으로 수집하는 자연과학 연구자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Ellis(1989)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정보 탐색 행태를 분석하여 ‘연쇄 탐색(Chaining)’과 ‘브라우징(Browsing)’을 포함한 행동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연구(Ellis et al., 1993)를 통해 이러한 특성이 인문학 연구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윤정옥(2009)은 인문학 연구자들이 전자자

원보다 책과 인쇄 학술지 등 전통적인 인쇄 매체에 의존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는 최신 데이터 중심의 자연과학과는 달리, 문헌의 누적된 깊이와 텍스트 자체를 중시하는 인문학 고유의 정보 이용 패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이러한 정보 탐색 행태는 Bates(1989)가 제시한 ‘베리피킹(Berrypicking)’ 모델과 부합한다. Bates는 실제 연구자의 탐색 과정이 고정된 질의어 하나로 완결되는 것이 아닌 유동적인 과정임을 규명하였다. 탐색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정보에 의해 정보 요구가 변화하고 질의어 또한 끊임없이 수정·진화하는 재구성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물론 베리피킹은 보편적인 정보 탐색의 특성이나, 표준화된 용어와 통제된 변수를 다루는 자연과학과 달리, 모호하고 가변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문헌의 해석을 통해 맥락을 구성해야 하는 인문사회계열 연구(Wiberley & Jones, 1989; Palmer & Neumann, 2002)에서 그 필요성과 빈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Bates의 베리피킹 모델은 정해진 정답을 찾기보다 흩어진 정보 조각을 연결해 맥락을 구성해야 하는 인문사회계열 연구자의 정보 탐색 과정을 적실하게 설명한다. 즉 인문사회계열 연구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단순한 검색 연산자의 조합 능력이 아니라, 우연한 발견(Serendipity)을 유의미한 연구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직관과 통찰력이다. Palmer와 Neumann(2002)은 학제간 인문학 연구자들이 광범위한 문헌을 읽고 브라우징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접한 정보로 연구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는 Makri와 Blandford(2012)가

박사과정생들의 정보 탐색을 추적 조사한 결과와 같이, 우연한 발견(Serendipity)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각주 추적이나 서가 브라우징과 같은 연구자의 능동적인 탐색 활동 중에 주로 발견되는 보편적 기제이다. 중요한 것은 Palmer와 Neumann(2002)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문사회계열 연구자에게 이러한 능동적 탐색 활동이 단순한 자료 수집을 위한 선택적 수단이 아닌 연구의 논리를 구축해가는 본질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타 계열과 구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에게 요구되는 정보 탐색 능력은 단순한 검색에 그치지 않고 탐색 과정의 우연한 발견을 유의미한 통찰로 연결하는 직관과 해석 능력이어야 한다(Case & Given, 2016).

대학원 과정은 단순히 상급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를 넘어, 학생이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학문 공동체에 진입하는 '사회화(Socialization)'의 과정이다(Weidman et al., 2001). 특히 Becher와 Trowler(2001)가 학문 분야를 '학문 부족(Academic Tribes)'으로 비유하며 분석한 바와 같이 인문사회계열은 자연과학계열과 달리 페러다임의 합의도가 낮은 연성(Soft) 학문 분야로서 해석적이고 논쟁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표준화된 실험 매뉴얼이나 법칙이 존재하는 자연과학과 달리,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들에게는 해당 학문의 고유한 담화 관습(Discourse)을 체득하고 학술적 대화에 참여하여 자신의 논리를 구성하는 능력이 사회화의 핵심 요건이 된다. 그러나 Lovitts(2001)와 Gardner(2008)가 지적하듯이, 공동 실험실(Lab) 문화가 정착된 이공계와 달리 도제식 모델과 개별 연구에 의존하는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지도교

수와의 관계나 동료 네트워크가 부재할 경우 학생이 '학자로서의 정체성(Scholar Identity)'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Isolation)될 위험이 크다. 이는 결국 중도탈락으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 된다. 즉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에게 정보 탐색과 연구 활동은 단순한 과제 수행이 아니라, 기존 연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학문적 위치를 정립하고 학문 공동체의 일원으로 통합되어가는 사회화의 과정이 된다.

ACRL(2016)은 정보 리터러시의 각 프레임마다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지식 실천(Knowledge Practices)'과 '성향(Dispositions)'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ACRL의 원문 지침을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의 연구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의 고유한 연구 맥락을 반영하여, ACRL의 6개 핵심 프레임을 <표 1>과 같이 재해석하였다.

2.3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서 고전 텍스트 활용의 의의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현대의 대학원생들에게 화면 기반 읽기(screen-based reading)는 선택이 아닌 인지적 기본값이다. Liu(2005)는 이러한 화면 기반 읽기의 증가가 키워드 검색, 비선형적 읽기, 선택적 읽기를 증가시키고, 단어 단위의 정독과 지속적 집중은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Nielsen(2006)의 시선 추적 연구에서는 웹페이지 이용자들이 상단과 좌측을 중심으로 빠르게 훑는 'F자형 읽기 패턴(F-shaped reading pattern)'을 보인다는 사실이 실증되었다. 이러한 읽기 방식은 정보 탐색의 효율성

<표 1>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ACRL 프레임워크 재해석

ACRL 프레임	ACRL 지식 실천(KP) 및 성향(DP)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 맥락에서의 재해석	관련 이론
권위는 구성되고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로 인정되는 권위의 차이 이해 •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고 회의하는 성향 • 전통적 권위 개념에 대한 의문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 분야(분과)별 권위 형성 기제의 차이 이해 • 전통적 권위(학술지)와 대안적 권위의 비판적 구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cher & Trowler(2001) : 학문 부족과 영토
정보 생성은 하나의 과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분야의 정보 생산 및 유통 과정 설명 • 정보가 담긴 형식(Format)에 따른 인식 차이 • 결과물 이면의 생산 과정을 파악하려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 출판 생태계(Peer Review 등)의 이해 • 연구 성과물(논문, 저서, 데이터)의 형태별 특성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uhn(1962); Ziman(1968) : 지식 생산의 사회적 합의 • Becher & Trowler(2001) : 인문학의 긴 호흡 출판
정보는 가치를 지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인용을 통한 원저자 인정(Credit) • 정보 접근성의 불평등 및 정보 특권 인식 •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이슈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재산권 및 연구 윤리(표절, 인용) 준수 • 오픈 액세스(OA) 및 학술 정보 유통의 경제학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neck(2006) : 표절과 아이디어 도용 • Suber(2012) : 학술 정보의 경제적 장벽
연구는 탐구의 과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충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 형성 • 연구를 개방형 탐색(Open-ended)으로 간주 • 불확실성과 애매모호함(Ambiguity)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적 해결이 아닌 질문의 진화(Evolution) 과정 경험 • 우연한 발견(Serendipity)에 대한 개방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es(1989) : Berrypicking(질의 수정) • Palmer & Neumann(2002) : 인문학의 발견적 탐색
학문은 대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중인 학술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식 • 자신을 소비자(Consumer)가 아닌 기여자(Contributor)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 연구와의 비판적 대화(Engagement) 시도 • 고립된 저자가 아닌 담론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dner(2008) : 학자 정체성 형성 • Lovitts(2001) : 공동체 통합과 사회화
검색은 전략적 탐색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에 따라 검색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 • 브라우징과 우연한 발견의 가치 인식 •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성 발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검색을 넘어선 발견적 탐색 수행 • 연구 단계에 따른 정보 활용 전략의 유연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lis(1989) : Chaining(연쇄 추적) • Bates(1989) : 비선형적·역동적 탐색

을 높이지만, 복잡한 논증을 따라가며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Carr, 2020; Wolf, 2018).

그러나 기존의 정보 리터러시 연구는 이러한 매체 환경의 변화와 고등 연구자의 요구에 온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라(2018)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메타리터러시(Metaliteracy)가 필요함에도 현재 교육현장이

여전히 도구적이고 단발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가 학부생 대상의 범용적 교육 모형이나 데이터베이스 이용법 등 기능적 기술의 숙달에 치중해 왔으며(유사라, 2018), 이는 연구자로서의 사회화 과정을 겪는 대학원생의 고유한 정체성 형성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Gardner, 2008). 무엇보다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암묵적 표준으로 삼는 기존의 리터러시 모델은 텍스트의 비

판적 해석과 맥락적 연결이 연구의 본질인 인문사회계열의 학문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Becher & Trowler, 2001).

이에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서 고전 텍스트의 활용은 이러한 기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세대의 지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적 효과가 텍스트 전체를 통독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은 읽기(close reading)'의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Wolf(2018)는 독자가 복잡한 텍스트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추론할 때 뇌의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과 언어 처리 회로가 깊게 활성화됨을 입증하였다. 이는 단순한 훑어보기(skimming)와는 다른 고차원의 인지 과정을 유발한다. McNamara(2004) 또한 학습자의 전략적인 심층 독해(deep processing) 수행을 통해 텍스트의 표면적 정보를 넘어 기저 상황 모델의 성공적 구축과 추론 능력이 향상됨을 실증하였다. 이는 방대한 고전의 완독이 아닌 핵심 논증이 담긴 주요 챕터의 발췌록(excerpts)의 정밀 독해 훈련만으로도 대학원생에게 필요한 심층 읽기 회로(deep reading circuit)의 강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고전 텍스트 기반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모든 학문 분야에 동일한 방식과 비중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Becher와 Trowler(2001)는 학문 분야를 지식의 경도(hard-soft)와 순수-응용(pure-applied) 축으로 분류하며, 인문사회계열을 '연성-순수(soft-pure)'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패러다임적 합의와 지식의 선형적 누적 특징인 자연과학의 '경성-순수(hard-pure)' 영역과 달리, '연성-순수(soft-pure)' 영역은 학자

간의 지속적인 논쟁과 재해석이 지식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사유의 원천이 되는 저서(monograph) 중심의 논증 구조를 파악하고 선행 연구와의 비판적 대화(critical engagement) 수행이 학문적 권위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제가 된다.

이러한 이론적 구분은 실제 정보 행동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자연계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Palmer, 2001)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검색, 최신 논문 추적, 실험 재현성 확인이 핵심 역량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문사회계열 연구자는 참고문헌의 연쇄적 추적(citation chaining), 1차 자료 탐색, 그리고 우연한 발견(serendipity)을 통한 맥락 구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Bates, 1989; Ellis, 1989; Meho & Tibbo, 2003; Palmer & Neumann, 2002). 실험 데이터가 주된 언어인 자연계열에서 고전 텍스트 읽기는 부차적 교양일 수 있으나 텍스트 해석이 곧 연구 방법론인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에게는 중요한 학문적 사회화 과정으로 그 존재론적 위상이 다르다.

그러므로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서 고전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습자의 읽기 습관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적 전략이다. 고전 텍스트는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인류의 지적 대화가 응축된 결과물로서, 독자에게 높은 수준의 인지적 인내심(cognitive patience)과 해석적 노력을 요구한다(Wolf, 2018). Adler와 Van Doren(1972)은 고전 텍스트 읽기를 분석적 읽기(analytical reading)와 종합적 읽기(syntopical reading)의 훈련 도구로 제시하며, 이러한 읽기가 비판적 사고와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기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느린 읽기(slow reading)는 파편화된 정보 소비에서 벗어나, 텍스트의 맥락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문해력을 훈련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어떤 고전 텍스트가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을 Adler와 Van Doren(1972)이 제시한 고전 선정의 세 가지 기준에서 찾고자 한다. 현대적 적실성(contemporary relevance), 재독을 통한 새로운 통찰의 가능성(re-readability), 그리고 인류의 항구적 질문에 대한 참여(participation in the great conversation)를 기본 틀로 하고 여기에 ACRL 프레임워크와의 개념적 연계 가능성을 추가 기준으로 설정한다. 즉, 본 연구에서 선정하는 고전 텍스트는 현대 정보 환경의 쟁점과 연결되어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다층적 해석이 가능하여 반복적 탐구의 대상이 되며, 권위, 가치, 탐구, 대화 등 ACRL 프레임워크의 핵심 문턱 개념(threshold concepts)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거나 문제화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고전 텍스트 활용은 문학적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교양 교육과는 구별된다. 이는 고전을 ACRL 프레임워크의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사고의 도구(thinking tool)'로 활용하는 전략적 독해(strategic reading)이다. 플라톤의 『국가』 속 '동굴의 비유'에서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정보 현실의 왜곡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거나(권위의 구성성),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통해 현대의 알고리즘 편향과 검열 이슈를 토론하는 방식이다(정보의 가치). 이러한 전략적 독해는 고전이 박제된 옛 지식이 아니라, 현

대의 정보 생태계를 해석하는 강력한 인식론적 틀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결과적으로 고전 텍스트는 대학원생들이 정보 리터러시의 핵심 개념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연구자의 철학으로 내면화하도록 돕는 촉매제로서 작용한다.

3. 모듈형 교육 모형 설계

3.1 설계 원리 및 방향

이 모형은 유연성과 확장성을 핵심 원리로 하는 모듈형 구조를 채택한다. 각 모듈은 독립적인 학습 목표와 완결성을 가지면서도,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설계의 기본 틀은 'ACRL 프레임 - 고전 텍스트 - 학습 활동'의 연계 구조이다.

〈표 2〉는 이 모형의 설계 원리 다음 세 가지 근거에 기반하여 제시한다. 먼저, ACRL(2016) 프레임워크가 각 프레임별로 명시한 Knowledge Practices(지식 실천)와 Dispositions(학습자 태도)를 분석하여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의 연구 맥락에 적절하도록 재해석하였다. 여기서 활용되는 고전 텍스트는 역사적 기원이면서도 현대적 쟁점과 구조적 상동성을 지녀, 학습자의 기존 인식에서 개념적 전환을 유도하는 텍스트를 우선하였다(Meyer & Land, 2003). 그에 따른 학습 활동은 Garrison et al.(2000)의 탐구 공동체(CoI) 모델을 기제로 삼아 사회적 실재감(토론·동료 피드백), 인지적 실재감(텍스트 읽기 → 탐색 → 통합 → 산출물), 교수 실재감(명시적 개념 연결·성찰 촉진)이 균형있게 구현하고자 했다.

〈표 2〉 ACRL 프레임워크 기반 모듈 구성 개요

모듈	ACRL 프레임 (핵심개념)	주요 활용 고전 텍스트	핵심 학습 활동 및 산출물	설계 근거 (ACRL KP/DP 및 활동 원리)
1	권위의 구성성 (Authority Is Constructed and Contextual)	플라톤(Plato, c. 370 BCE), 『파이드로스』 274c-275b (문자 발명에 대한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토론] AI 및 텍스트 권위 비평 • 산출물: 권위 비평 에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RL 연계: 전통적 권위 개념에 대한 회의적 태도 (DP) 함양 및 다양한 유형의 권위 개념 정의(KP) 실천 • 텍스트 선정 근거: 소크라테스의 “문자=기억 위주화” 비판이 AI 생성 정보의 권위 문제와 구조적 유사성을 가짐. 새로운 매체 등장 시 권위 재구성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선례(Lanham, 2006) • 활동 원리: Freire(1970)의 비판적 의식화(Conscientization)를 통해 정보원에 대한 맹목적 수용 태도 해체
2	정보 생산의 과정성 (Information Creation as a Process)	토마스 쿤(Kuhn, 1962), 『과학 혁명의 구조』 9-10장 (패러다임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시뮬레이션] 동료 심사 및 피드백 • 산출물: 심사 수용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RL 연계: 특정 분야의 정보 생산 및 유통 과정 설명(KP)과 결과물 이전의 생산 과정 파악 태도(DP) 배양 • 텍스트 선정 근거: 쿤의 “정상과학 vs 혁명” 구도가 지식을 완성된 산물이 아닌 공동체 합의 과정으로 보게 함. 동료심사를 단순 품질관리가 아닌 지식 정당화(Justification) 메커니즘으로 이해(Ziman, 1968; 2002) • 활동 원리: Col 모델의 동료 교수 실재감(Peer Teaching Presence) 구현(Anderson et al., 2001). 학습자가 평가자 역할 경험하며 학문공동체 규범 내면화
3	정보의 가치성 (Information Has Value)	존 로크(Locke, 1689), 『통치론』 제2권5장 (노동과 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논쟁] 오픈 액세스 찬반토론 • 산출물: OA 입장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RL 연계: 적절한 인용을 통한 원저자 인정(Credit) 및 정보 접근 불평등 인식(KP) • 텍스트 선정 근거: 로크의 “노동-재산권” 논리가 저작권의 철학적 토대(Locke’s Proviso)임. 학습자는 지적 재산권이 자연권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임을 논증적으로 검토(Hesse, 2002) • 활동 원리: 찬반토론(Debate)을 통해 복잡한 윤리적 쟁점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변증법적 사고(Dialectical Thinking) 훈련
4	탐구로서의 연구 (Research as Inquiry)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 c. 350 BCE), 『형이상학』 제1권1-2장 (경이로움과 앎의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실습] 질문 생성 및 정교화 • 산출물: 연구 질문 정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RL 연계: 상충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 형성 (KP) 및 불확실성과 애매모호함 수용 태도(DP) 배양 • 텍스트 선정 근거: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자 한다”는 명제가 연구 동기를 실용적 필요에서 지적 호기심(Wonder)으로 전환. 질문 중심 학습(QFT)의 철학적 정당화(Rothstein et al., 2011) • 활동 원리: 질문 형성 기법(QFT)의 4단계(생성 → 개선 → 우선순위 → 성찰) 적용으로 메타인지적 질문 설계 역량 배양
5	대화로서의 학술활동 (Scholarship as Conversation)	존 스튜어트 밀(Mill, 1859), 『자유론』 제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분석] 선행연구 흐름도 작성 • 산출물: 문헌 리뷰 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RL 연계: 진행 중인 학술적 대화 참여 인식(DP) 및 자신을 소비자가 아닌 기여자로 인식(KP) • 텍스트 선정 근거: 밀의 “진리는 오류와의 충돌에서 더 생생해진다” 논증이 학술비평의 건설적 역할 정당화. 선행연구 비판이 부정적 아닌 대화임을 인식(Graff & Birkenstein, 2014) • 활동 원리: 문헌리뷰를 “요약”이 아닌 “대화 지도 그리기(Mapping Scholarly Conversation)”로 재개념화. 자신의 연구를 대화 네트워크에 위치시키는 연습

모듈	ACRL 프레임 (핵심개념)	주요 활용 고전 텍스트	핵심 학습 활동 및 산출물	실제 근거 (ACRL KP/DP 및 활동 원리)
6	전략적 탐색 (Searching as Strategic Exploration)	프랜시스 베이컨 (Bacon, 1620) 『신기관』 제1권 (귀납법과 이상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성찰] 검색 습관 진단 • 산출물: 탐색 성찰 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RL 연계: 결과에 따라 검색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 (KP) 및 브라우징과 우연한 발견의 가치 인식(DP) • 텍스트 선정 근거: 베이컨의 4가지 이상론이 현대 인지 편향(Cognitive Bias) 이론의 고전적 선례. 특히 “동굴의 이상”이 개인화된 검색 습관의 맹점 성찰에 유용한 개념적 틀(Nickerson, 1998) • 활동 원리: Bates(1989)의 베리피킹 모델과 베이컨 이상론 결합. 탐색자가 자신의 인지 상태를 스스로 관찰하고 조절하는 메타인지 모니터링(Flavell, 1979)

3.2 모듈별 세부 설계

이 절에서는 ACRL 프레임워크의 6개 핵심 개념에 기반하여 구성된 각 모듈의 세부 구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모듈별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고전 텍스트를 선정한 근거, 그리고 실제 모듈에서 구현될 학습 활동과 산출물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 각 모듈은 75분 내외의 단일 세션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운영 환경에 따라 확장 또는 축소가 가능하다.

3.2.1 모듈 1: 권위의 구성성

- 학습 목표: 정보의 권위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닌 특정 맥락과 공동체 내에서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사회적 산물임을 이해한다.
- 고전 텍스트: 플라톤, 『파이드로스』 274c-75b
- 선정 근거: 소크라테스는 이집트의 신 테우트(Theuth)가 문자를 발명하여 타무스 왕에게 바치는 장면에서 문자의 발명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한다. 타무스 왕은 “이것은 기억(mneme)이 아닌 단순한 상기(hypomnesis)의 도구”이라며, 문자가 “지혜의 외양만 줄 뿐 진정한 지혜를 주지 못

한다”고 경고한다. 이는 새로운 정보 매체에 대한 인류 최초의 비판적 성찰로 오늘날 생성형 AI가 양산하는 그럴듯한 정보의 권위 문제와 구조적 상동성을 이룬다. 학습자는 2,400년 전의 텍스트가 현대의 정보 환경을 해석하는 유효한 해석 도구를 체감할 수 있다.

- 학습 활동: 원전 읽기 → AI 권위 비평 토론 → 비판적 의식화(Freire, 1970)에 기반한 성찰
- 산출물: 비평 에세이 “나의 연구 분야에서 권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3.2.2 모듈 2: 정보 생산의 과정성

- 학습 목표: 정보의 가치가 생산 및 유통의 절차적 맥락 속에서 형성됨을 통찰하고 학술 출판 생태계를 지탱하는 내적 작동 기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 고전 텍스트: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9-10장
- 선정 근거: 쿤이 제시한 ‘정상과학’과 ‘패러다임’ 개념은 학술 지식이 진리의 단순한 누적이 아니라 학문 공동체의 합의와 검증을 거쳐 구축되는 사회적 구성물임을 역설한다. 본 모듈에서 이 텍스트의 활용

의도는 쿤의 이론을 동료심사 시스템에 직접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학습자에게 “지식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라는 메타인지적 물음에 직면하게 하려는 것이다. Ziman(2000)은 현대 과학 지식 생산에서 동료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지식(Reliable Knowledge)’을 구성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임을 시사하였다. 즉, 쿤의 거시적 통찰을 통해 지식 생산의 과정성을 인식론적으로 이해하고 동료심사 시뮬레이션으로 연결하여 ACRL(2016)에 제시된 결과물 이면의 생산 과정을 파악하려는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다.

- 학습 활동: 원전 읽기 → 동료심사 및 피드백
- 산출물: 동료 피드백 수용 보고서

3.2.3 모듈 3: 정보의 가치성

- 학습 목표: 정보가 상품이자 지적 자산으로서 법적·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님을 이해하고, 학술 정보 유통의 윤리적 쟁점을 분석한다.
- 고전 텍스트: 존 로크, 『통치론』 제2권 5장
- 선정 근거: 로크는 “자연 상태의 것에 노동을 섞으면 그것은 나의 재산이 된다”는 노동가치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지적 재산권(IP) 제도의 철학적 기원으로 널리 인용된다(Merges, 2011). 로크는 “공유물에 노동을 투입하면 사적 소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위해 충분한 양을 남겨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텍스트는 현대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쟁점인 ‘연구 성과의 저작권(Copyright)’과 ‘오픈 액세스(Open Access)를 통한 공유’ 간의 긴장 관계를 근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학습자는 로크의 논리를 준거로 삼아, 학술 논문의 소유권과 공유의 윤리 사이에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립한다.

- 학습 활동: 원전 읽기 → 오픈 액세스 찬반 토론
- 산출물: OA 입장문 “나는 왜 오픈 액세스를 지지/반대하는가”

3.2.4 모듈 4: 탐구로서의 연구

- 학습 목표: 연구가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재구성하고 심화하는 탐구 과정임을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 질문을 정교화한다.
- 고전 텍스트: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제1권 1-2장
- 선정 근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자 한다”며 학문의 동기를 ‘경이로움’에서 찾는다. 본 모듈에서 이 텍스트의 활용 의도는 연구의 출발점이 순수한 호기심과 세계에 대한 놀라움임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Rothstein & Santana(2011)의 질문 형성 기법(QFT)을 방법론적 기제로 삼아, 막연한 호기심을 구체적이고 학술적인 연구 질문으로 전환한다.
- 학습 활동: 원전 읽기 → 브레인스토밍 → 질문 형성 기법(QFT) 실습
- 산출물: 연구 질문 정의서(연구 질문 3개 도출, 최종 1개 정교화 및 선정 근거)

3.2.5 모듈 5: 대화로서의 학술활동

- 학습 목표: 학술 활동이 선행 연구자들과 시공간을 초월한 역동적인 대화임을 이해하고, 타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경청하며 그 위에 자신의 논지를 접목하는 능동적 역량을 기른다.
- 고전 텍스트: 밀, 『자유론』 제2장
- 선정 근거: 밀은 “우리가 어떤 의견을 침묵시킨다면, 그 의견이 참일 경우 진리와 오류를 교환할 기회를 잃는 것이고, 거짓일 경우에도 진리가 오류와의 충돌에서 더 생생하게 드러날 기회를 잃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는 비판적 인용이 선행 연구에 대한 공격이 아닌 능동적 진리 검증으로서의 지적 상호작용임을 시사한다.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논지를 접목하는 과정을 통해 학술 공동체의 대화에 참여한다.
- 학습 활동: 원전 읽기 → 선행연구 흐름도 작성
- 산출물: 문헌 리뷰 초고

3.2.6 모듈 6: 전략적 탐색

- 학습 목표: 정보 탐색이 유연하게 전략을 재설정하는 진화적 과정임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보 탐색 행태를 메타인지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한다.
- 고전 텍스트: 베이컨, 『신기관(Novum Organum)』 제1권
- 선정 근거: 베이컨은 인간의 인식을 방해하는 ‘4대 우상’으로 종족의 우상(Idola Tribus), 동굴의 우상(Idola Specus), 시장의 우상(Idola Fori), 극장의 우상(Idola Theatri)

을 제시하였다. 이 분류는 연구자가 정보 탐색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인지적 오류를 성찰하게 한다. 주관적 경험에 갇히는 ‘동굴의 우상’이나 언어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한 ‘시장의 우상’은, 연구자의 키워드 선정이나 검색 결과 해석에서의 한계를 지적하는 고전적 증거이다. 본 모듈에서는 Bates(1989)의 베리피킹(Berrypicking)을 전략적 대안으로, 베이컨의 분류틀을 도구로 활용하여 경직된 검색 습관을 유연하고 전략적인 탐구로 개선하도록 계기를 제공한다.

- 학습 활동: 우상 유형 정리 → 검색 전략 비교 실습 → 탐색 성찰 일지 작성
- 산출물: 탐색 성찰 일지

Clark(2019)에 따르면 효과적인 교육 설계를 위해 방대한 내용을 통제 가능한 크기로 분절화(Segmenting)해야 한다. 핵심은 분절화된 각 단위가 명확한 학습 성과를 산출하는 독립적 완결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모형에서 제시한 각 모듈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순차적으로 이수할 경우 ACRL 프레임워크의 전체 체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각 모듈의 산출물은 학습자의 실제 연구 과정에 직접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는 학습한 개념을 자신의 연구 맥락에 즉시 적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학습 전이(Transfer)를 촉진한다(Barnett & Ceci, 2002).

3.3 교수-학습 전략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 모형은 가리슨

(Garrison), 앤더슨(Anderson), 아처(Archer)의 '탐구 공동체(Community of Inquiry, CoI)' 모델을 교수-학습의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Garrison et al., 2000). CoI 모델은 효과적인 학습 경험이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 인지적 실재감(Cognitive Presence), 교수 실재감(Teaching Presence)의 세 요소가 상호작용할 때 발생한다고 본다. 본 모형은 이 세 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현한다.

- 사회적 실재감: 학습자들이 서로를 학문 공동체의 동료 연구자로 인식하도록 소그룹 토론, 동료심사 시뮬레이션, 짝 활동 등 협력적 학습 구조를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고립된 수강생'이 아닌 '탐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 인지적 실재감: 고전 텍스트를 지적 호기심의 촉발 기제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비판적 탐구를 유도한다. '텍스트 읽기 → 해석 및 토론 → 자기 연구에 적용'의 단계를 통해 학습자는 고전의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연구 맥락 속에서 재구성한다.
- 교수 실재감: 사서와 교수의 협력 교수(Co-teaching)를 지향한다. 사서는 정보 환경, 데이터베이스 활용, 검색 전략 등 정보학적 측면을 지원하고, 해당 분야 교수는 고전 텍스트의 맥락적 해석과 학문적 관습의 접근을 지도한다. 이러한 전문성의 결합은 정보 리터러시 교육의 학술적 깊이와 현장 적합성을 담보한다.

수업의 기본 흐름은 '읽기 → 대화 → 쓰기'의 순환적 구조를 따른다.

- 사전 학습(Pre-class): 지정된 고전 텍스트 발췌본과 관련 논문을 읽고, 성찰 저널을 작성한다.
- 본 수업(In-class): 텍스트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의미를 확장하고, ACRL 프레임의 핵심 개념과 연결하여 이론적으로 구조화한다. 필요한 경우,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실습을 병행할 수 있다.
- 사후 활동(Post-class): 모듈별 학습 내용을 자신의 연구 주제에 적용하여 산출물을 작성하고, 동료 피드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다.

이러한 순환적 구조를 통해 '읽기-대화-쓰기'의 반복적 실천이 참여자의 연구 역량으로 내면화되도록 설계하였다.

4. 운영 시나리오 및 적용 가능성

4.1 운영 형태별 시나리오

이 모형의 핵심적 강점은 모듈성(Modularity)을 활용한 유연한 운영 가능성에 있다. 6개의 독립적 모듈은 대학의 교육

환경, 운영 주체의 역량,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정규 교과목형(A안), 방학 집중형(B안), 도서관 비교과형(C안)의 세 가지 운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각의 특성과 적용 조건을 비교 분석한다.

다음 <표 3>은 세 가지 운영 형태의 주요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표 3〉 운영 형태별 비교

구분	A안: 정규 교과목형 (15주)	B안: 방학 집중형 (5일)	C안: 도서관 비교과형 (6주)
운영 주체	대학원 학과/교수학습개발센터	대학원/도서관 공동 운영	대학 도서관 (주제전문사서)
총 운영 시간	45시간 (주 3시간 × 15주)	30시간 (1일 6시간 × 5일)	12시간 (주 2시간 × 6주)
운영 기간	1학기 (15주)	방학 중 1주	학기 중 6주
대상	대학원 신입생 (필수/선택)	논문 작성 예정자/수료생	전체 대학원생 (희망자)
모듈당 배정 시간	6-7시간 (2-3주)	5시간 (1일)	2시간 (1주)
고전 텍스트 활용	원전 완독 가능, 심층 해석	핵심 발췌문 중심, 집중 토론	짧은 발췌문 (1-2쪽)
산출물 수준	학술 에세이, 연구 프로포절	연구 계획서 초안, 문헌 리뷰 초고	성찰 저널, 탐색 일지
학점/인증	3학점 부여	수료증/비교과 마일리지	도서관 이수 인증
장점	체계적 심화 학습, 연구 역량 직접 연계	단기 집중 몰입, 즉각적 연구 적용	접근성 높음, 부담 적음
제한점	교과목 개설 행정, 시간 확보 부담	사전 준비 필수, 피로도 관리	심층 학습 제한, 자발적 참여 의존

4.1.1 A안: 정규 교과목형 (15주, 3학점)

정규 교과목형은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 모형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하는 표준 운영안으로 대학원 공통 필수 또는 선택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심층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15주의 충분한 시간을 활용하여 6개 모듈을 심도 있게 다루며, 고전 텍스트의 완독과 심층 해석이 가능하다(〈표 4〉 참조).

A안의 최종 산출물인 학습 계획서는 학습자의 실제 학위논문 연구 계획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교육 내용의 전이(Transfer) 효과가 가장 높다. 다만, 대학원 교과목 신설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학점 이수에 따른 학습자의 시간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4.1.2 B안: 방학 집중형 (5일, 30시간)

방학 집중형은 동계 또는 하계 방학 기간을 활용한 워크숍 형태로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논문 작성을 앞둔 수료생이나 연구 계획 수립이 시급한 학습자에게 적합하다. 대학원과 도서관의 공동 운영을 통해

이론과 실습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표 5〉 참조).

B안은 집중적인 몰입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교육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의 고전 텍스트 사전 독해가 요구된다. 5일 연속의 집중 일정에 따른 학습자의 인지적 피로도를 고려한 운영의 완급 조절도 필요하다.

4.1.3 C안: 도서관 비교과형 (6주, 12시간)

도서관 비교과형은 대학 도서관이 주관하는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주 1회 2시간씩 6주간 진행되지만 학습자가 희망하는 모듈만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개방형 운영이다. 이는 모듈식 구조를 채택의 장점으로 접근성과 유연성이 극대화된다. 모듈별로 전문 사서가 교육을 담당하고 필요시 해당 분야 교수의 특강을 병행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표 6〉 참조).

C안은 학습자의 시간적 부담이 가장 적고 도서관의 기존 이용교육 체계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으로

〈표 4〉 A안: 정규 교과목형 주차별 운영 계획

주차	모듈/활동	주요 내용	산출물
1	오리엔테이션	교과목 소개, ACRL 프레임워크 개관, 개인별 학습 목표 설정	학습 계획서
2-3	모듈 1: 권위의 구성성	플라톤 『파이드로스』 읽기 및 토론, AI 시대 정보 권위 분석	비평 에세이 (1,500자)
4-5	모듈 2: 정보 생산의 과정성	쿤 『과학혁명의 구조』 읽기, 동료심사 시뮬레이션	연구 초록 + 피드백 보고서
6-7	모듈 3: 정보의 가치성	로크 『통치론』 읽기, 오픈엑세스 찬반 토론	입장문 (1,000자)
8	중간 성찰	모듈 1-3 학습 성찰, 산출물 피드백, 후반부 안내	중간 성찰문
9-10	모듈 4: 탐구로서의 연구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읽기, 연구 질문 개발 실습	연구 질문 정교화
11-12	모듈 5: 대화로서의 학술 활동	밀 『자유론』 읽기, 문헌 리뷰 작성 실습	문헌 리뷰 초고 (500자)
13-14	모듈 6: 전략적 탐색	베이컨 『신기관』 읽기, DB 검색 전략 비교 실습	탐색 일지
15	종합 발표 및 평가	개인별 연구 프로포절 발표, 동료 피드백, 총평	연구 프로포절 (최종)

〈표 5〉 B안: 방학 집중형 일차별 운영 계획

일차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산출물
1일차	오리엔테이션 (1h) + 모듈 1: 권위의 구성성 (2h)	모듈 2: 정보 생산의 과정성	비평 에세이 초안, 연구 초록 초안
2일차	모듈 3: 정보의 가치성	중간 성찰 (1h) + DB 검색 기초 실습 (2h)	입장문, 검색 실습 결과
3일차	모듈 4: 탐구로서의 연구	모듈 5: 대화로서의 학술활동	연구 질문 3개, 문헌 리뷰 초안
4일차	모듈 6: 전략적 탐색	통합 실습: 자기 연구 주제 적용	탐색 일지, 연구 계획서 초안
5일차	개인별 연구 계획 발표 (2h) + 동료 피드백 (1h)	전체 토론 및 총평 (2h) + 수료식 (1h)	연구 계획서 (최종), 학습 성찰문

〈표 6〉 C안: 도서관 비교과형 주차별 운영 계획

주차	모듈	고전 텍스트(발췌)	활동 흐름 (2시간)	산출물
1	모듈 1: 권위의 구성성	플라톤(1995) 『파이드로스』 (2쪽)	발췌독(20분) → 토론(40분) → 실습(40분) → 정리(20분)	성찰 저널
2	모듈 2: 정보 생산의 과정성	쿤(1962) 『과학혁명의 구조』 (2쪽)	발췌독(20분) → 토론(40분) → 실습(40분) → 정리(20분)	성찰 저널
3	모듈 3: 정보의 가치성	로크(1988) 『통치론』 (2쪽)	발췌독(20분) → 토론(40분) → 실습(40분) → 정리(20분)	성찰 저널
4	모듈 4: 탐구로서의 연구	아리스토텔레스(1924) 『형이상학』 (2쪽)	발췌독(20분) → 토론(40분) → 실습(40분) → 정리(20분)	연구 질문 메모
5	모듈 5: 대화로서의 학술활동	밀(1989) 『자유론』 (2쪽)	발췌독(20분) → 토론(40분) → 실습(40분) → 정리(20분)	인용 분석 메모
6	모듈 6: 전략적 탐색	베이컨(2000) 『신기관』 (2쪽)	발췌독(20분) → 토론(40분) → 실습(40분) → 정리(20분)	탐색 일지

인해 고전 텍스트의 심층적 해석보다는 핵심 개념의 소개와 토론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심화 학습을 원하는 참가자에게는 A안 또는 B안으로의 연계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4.2 적용 시 고려사항 및 기대 효과

이 모형의 성공적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장덕현과 최고운(2008)이 개발한 대학원생 대상 정보 리터러시 교육 모형은 ‘정보 요구 인식 → 정보 탐색 → 정보 평가 → 정보 활용’의 선형적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보 활용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는 ACRL과 ALA의 2000년 ‘기준(Standards)’에 기반한 접근으로서, 당시로서는 체계적인 교육 설계를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보 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된 현시점에서는 정보의 사회적 맥락과 인식론적 토대에 대한 메타적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음 <표 7>은 기존 교육 접근과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형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한 것이다.

이 연구 모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사서

와 교수의 협력 교수(Co-teaching)가 필수적이다.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서 사서-교수 협력의 중요성은 Mounce(2010) 등 선행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사서가 정보 환경의 구조를 바탕으로 방법론적 지식을 제공한다면, 교수는 고전 텍스트의 맥락적 해석을 통해 연구 윤리의 실제적 적용 등 학문적 전문성을 심화한다. 이러한 상호 협력 체계는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도구적 기술 습득을 넘어 학문적 사회화의 과정으로 기능하도록 돕는다.

이 모형의 활용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가 정보를 단순히 도구가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가치를 지니는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는 ACRL 프레임워크가 지향하는 임계 개념의 체득을 의미하며 정보 리터러시의 인식론적 심화를 가져온다. 둘째, 고전 텍스트를 현대 정보 환경을 분석하는 해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인문학적 사유와 정보 기술 활용 능력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셋째,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 제공의 장소가 아니라 지적 탐구와 학술적 담론이 생산되는 장(場)으로서 역할하며 대학 내 교육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표 7> 기존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본 모형의 비교

비교 항목	기존 접근 (기능 중심)	본 모형 (개념 중심)
이론적 기반	ACRL & ALA 정보 리터러시 기준 (2000)	ACRL 프레임워크 (2016) + 임계 개념 이론
교육 목표	정보 탐색·평가·활용 기술 습득	정보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 변화
교육 내용	DB 검색법, 서지 관리 도구, 인용법	권위의 구성성, 정보의 가치, 학술적 대화
교수 방법	시범-실습 중심의 기능 훈련	고전 텍스트 기반 토론 + 성찰적 글쓰기
학습자 역할	기술의 수용자	개념의 탐구자, 지식 생산자
평가 방식	기능 수행 여부 확인	인식 변화 및 적용 능력 평가
교육 대상 특성화	범용적 설계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 맥락 반영

5. 결론

이 연구는 디지털 정보 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에게 요구되는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재정 의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모형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ACRL 프레임워크의 6개 핵심 개념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 고전 텍스트를 매개로 한 6개 모듈 기반의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하는 교육 모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리터러시의 인신록전 전환이다. 본 모형은 기존의 도구적 기능 교육이 간과했던 정보의 사회적 맥락과 지식 생산의 권위 구조를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탐구하게 한다. 플라톤, 쿤, 로크, 아리스토텔레스, 밀, 베이컨 등의 고전 텍스트를 ACRL 프레임워크에 접목함으로써, 정보 리터러시를 단순한 검색 기술이 아닌 연구자의 인식론적 태도로 내면화하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실천적 교수-학습 전략의 구체화이다. 탐구 공동체(CoI) 모델을 토대로 '읽기-대화-쓰기'의 순환적 전략을 통해, 정보 리터러시 개념이 일회적 강의가 아닌 반복적 실천 속에서 체화되도록 하였다. 각 모듈의 산출물은 학습자의 실제 연구 과정에 직접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어, 교육 내용의 전이 효과를 높였다.

셋째,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 체계이다. 정규 교과목형, 방학 집중형, 도서관 비교과형의 세 가지 운영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대학의 상황과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모듈성을 확보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와 모형 설계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실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이론적 정합성과 교수-학습 전략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설계 기반 연구(Design-based Research)'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가 제시한 모듈별 고전 텍스트 매칭과 구체적인 활동 시나리오는 향후 대학 및 대학 도서관에서 연구자 맞춤형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활용 가능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 모형을 실제 비교과 워크숍으로 시범 운영하고, 학습자의 정보 리터러시 인식 변화와 연구 효능감을 측정하는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가 제안한 고전 텍스트 활용의 효과성을 양적·질적 방법론을 통해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인문사회계열에 특화된 이 모형을 바탕으로, 이공계열의 실험실 문화나 예체능 계열의 실기 중심 연구 특성을 반영한 계열별 특화 모형으로의 확장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양선 (2018). 대학 필독서를 활용한 교양교육 사례 연구: 한림대학교 교과, 비교과 영역 운영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9(1), 167-194. <http://dx.doi.org/10.37736/kjlr.2018.03.9.1.167>
- 유사라 (2018). 메타리터러시 관점에서의 문헌정보학 전공 커리큘럼 진단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191-220.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2.191>
- 윤정옥 (2009). 인문학자의 정보자원 이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7-34. <http://dx.doi.org/10.3743/KOSIM.2009.26.1.007>
- 이운지, 이은환, 김수환 (2019).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교육연구논총*, 40(3), 201-221. <http://dx.doi.org/10.18612/cnujes.2019.40.3.201>
- 장덕현, 최고운 (2008). 대학도서관 정보활용교육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37-60. <https://doi.org/10.14699/kbiblia.2008.19.1.037>
- 정영미, 강지혜, 박주현, 신영지, 이운선, 이정미 (2025). 메타리터러시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역량 설정 및 체계 개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정재리, 이다점, 이소율, 이영준 (2022).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0(2), 413-416.
- 최재황 (2016a). AASL(2007)과 ACRL(2015) 정보리터러시 기준에 내재된 정의적 성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115-137. <https://doi.org/10.16981/kliss.47.201609.115>
- 최재황 (2016b). ACRL 정보리터러시 '프레임웍(2015)'의 중심 개념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171-191.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3.171>
- ACRL (2016). Framework for information literacy for higher education. Available: https://www.ala.org/sites/default/files/acrl/content/issues/infolit/Framework_ILHE.pdf
- Adler, M. J. & Van Doren, C. (1972). *How to Read a Book*.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Anderson, T., Liam, R., Garrison, D. R., & Archer, W. (2001). Assessing teaching presence in a computer conferencing context. *Online Learning*, 5(2), 1-17.
- Aristotle (c. 350 BCE). *Metaphysics*. Translated by W. D. Ross (1924). *Metaphys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ssociation of College, Research Libraries(ACRL)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ALA). (2000).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ACRL.
- Bacon, F. (2000). *The New Organon*. In L. Jardine & M. Silverthorne eds. *The New Organ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20).
- Badke, W. B. (2021). *Research Strategies: Finding Your Way Through the Information Fog*.

- New York: iUniverse, Inc.
- Barnett, S. M. & Ceci, S. J. (2002). When and where do we apply what we learn? A taxonomy for far transfer. *Psychological Bulletin*, 128(4), 612-637.
<https://doi.org/10.1037/0033-2909.128.4.612>
- Bates, M. J. (1989). The design of browsing and berrypicking techniques for the online search interface. *Online Review*, 13(5), 407-424. <https://doi.org/10.1108/eb024320>
- Becher, T. & Trowler, P. (2001). *Academic Tribes and Territories* (2nd ed.). Buckingham: McGraw-Hill Education (UK).
- Carr, N. (2020). *The Shallows: What the Internet Is Doing to Our Brain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Case, D. O. & Given, L. M. (2016).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 (4th ed.). Bingley: Emerald Group Publishing.
- Clark, R. C. (2019). *Evidence-Based Training Methods: A Guide for Training Professionals* (3rd ed.). Alexandria: 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
- Ellis, D. (1989). A behavioural model for information seeking design.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15(4-5), 237-247. <https://doi.org/10.1177/016555158901500406>
- Ellis, D., Cox, D., & Hall, K. (1993). A comparison of the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of researchers in the physical and social sciences. *Journal of Documentation*, 49(4), 356-369.
<https://doi.org/10.1108/eb026919>
- Flavell, J. H. (1979).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 new area of cognitive-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34(10), 906-911.
- Freire, P. (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 Gardner, S. K. (2008). Fitting the mold of graduate school: A qualitative study of socialization in doctoral education. *Innovative Higher Education*, 33(2), 125-138.
<https://doi.org/10.1007/s10755-008-9068-x>
- Garrison, D. R., Anderson, T., & Archer, W. (2000). Critical inquiry in a text-based environment: Computer conferencing in higher education.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2(2-3), 87-105. [https://doi.org/10.1016/S1096-7516\(00\)00016-6](https://doi.org/10.1016/S1096-7516(00)00016-6)
- Graff, G. & Birkenstein, C. (2014). *They Say / I Say: The Moves That Matter in Academic Writing* (3rd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Hesse, C. (2002). The rise of intellectual property, 700 BC-AD 2000: An idea in the balance. *Daedalus*, 131(2), 26-45.

- Kuhn, T.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ham, R. A. (2006). *The Economics of Attention: Style and Substance in the Age of Inform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u, Z. (2005). Reading behavior in the digital environment: changes in reading behavior over the past ten years. *Journal of Documentation*, 61(6), 700-712.
<https://doi.org/10.1108/00220410510632040>
- Locke, J. (1988). *Two Treatises of Government*. In P. Laslett eds. *Two Treatises of Gover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 Lovitts, B. E. (2001). *Leaving the Ivory Towe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Departure from Doctoral Study*. Lanham: Bloomsbury Publishing PLC.
- Makri, S. & Blandford, A. (2012). Coming across information serendipitously: Part 1 - A process model. *Journal of Documentation*, 68(5), 684-705.
<https://doi.org/10.1108/00220411211256030>
- McNamara, D. S. (2004). SERT: Self-explanation reading training. *Discourse processes*, 38(1), 1-30.
- Meho, L. I. & Tibbo, H. R. (2003). Modeling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social scientists: ellis's study revisited.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4(6), 570-587.
- Merges, R. P. (2011). *Justifying Intellectual Proper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eyer, J. & Land, R. (2003). Threshold concepts and troublesome knowledge: Linkages to ways of thinking and practising within the disciplines. ETL Project Occasional Report 4. University of Edinburgh: Enhancing Teaching-Learning Environments in Undergraduate Courses (ETL) Project.
- Mill, J. S. (1989). *On Liberty*. In S. Collini eds. *On Liberty and Other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859).
- Mounce, M. (2010). Working together: Academic librarians and faculty collaborating to improve students' information literacy skills: a literature review 2000-2009. *The Reference Librarian*, 51(4), 300-320.
- Nickerson, R. S. (1998).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2), 175-220.
- Nielsen, J. (2006). F-shaped pattern for reading Web content, Jakob Nielsen's Alertbox.
http://www.useit.com/alertbox/reading_pattern.html
- Palmer, C. L. & Neumann, L. J. (2002). The information work of interdisciplinary humanities

- scholars: EXPLORATIOn and translation. *The Library Quarterly*, 72(1), 85-117.
<https://doi.org/10.1086/603337>
- Palmer, C. L. (2001). *Work at the Boundaries of Science: Information and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cess*. Dordrecht: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Plato. (c. 370 BCE). *Phaedrus*. Translated by A. Nehamas & P. Woodruff (1995). *Phaedrus*.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 Rothstein, D. & Santana, L. (2011). *Make Just One Change: Teach Students to Ask Their Own Questions*. Cambridge: Harvard Education Press.
- Steneck, N. H. (2006). Fostering integrity in research: definitions, current knowledge, and future directions.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12(1), 53-74.
<https://doi.org/10.1007/s11948-006-0006-y>
- Suber, P. (2012). *Open Access*. Cambridge: The MIT Press.
- Weidman, J. C., Twale, D. J., & Stein, E. L. (2001). Socialization of graduate and professional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a perilous passage? *ASHE-ERIC Higher Education Report*, 28(3), 1-118. <https://doi.org/10.1002/aehe.2803>
- Wiberley, S. E., Jr., & Jones, W. G. (1989). Patterns of information seeking in the humanit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0(6), 638-645.
- Wolf, M. (2018). *Reader, Come Home: The Reading Brain in a Digital World*. New York: Harper.
- Ziman, J. M. (1968). *Public Knowledge: An Essay Concerning the Social Dimension of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iman, J. M. (2002). *Real Science: What It Is, and What It Me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urk-Hyun & Choi, Go-Un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for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1), 37-60. <https://doi.org/10.14699/kbiblia.2008.19.1.037>
- Choi, Jae-Hwang (2016a). The analysis of affective dispositions in AASL(2007) and ACRL(2015)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3), 115-137. <https://doi.org/10.16981/kliss.47.201609.115>
- Choi, Jae-Hwang (2016b). Considering core ideas of ACRL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2015)'.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50(3), 171-191.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3.171>
- Jeong, Jae-Ri, Lee, Dageom, Lee, So-yul, & Lee, Youngjun (2022). A study on research trends for digital literacy in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uter Information*, 30(2), 413-416.
- Jung, Youngmi, Kang, Ji Hei, Park, Ju-Hyeon, Shin, Youngji, Lee, Yun-Seon, & Lee, Jeong-Mee (2025). A study on establishing competencies and developing a system for developing a metaliteracy diagnostic tool. *KERIS Research Report*.
- Kim, Yangsun (2018). The case study of general education based on the required reading book in university: focused on the curriculum and extra-curriculum program in Hallym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9(1), 167-194.
<http://dx.doi.org/10.37736/kjlr.2018.03.9.1.167>
- Lee, Woon Jee, Lee, Eun-Hwan, & Kim, Soohwan (2019). Developing a digital literacy curriculum framework.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0(3), 201-221.
<http://dx.doi.org/10.18612/cnujes.2019.40.3.201>
- Yoo, Sarah (2018). A diagnostic analysis of LIS curriculum from the meta-literacy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52(2), 191-220.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2.191>
- Yoon, Cheong-Ok (2009). A research on the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of the humanities scholar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1), 7-34.
<http://dx.doi.org/10.3743/KOSIM.2009.26.1.007>